

외국인, 지역산업 완충 역할...“이주분산 정책은 필요”

■한은-광주·전남연구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세미나

10년새 광주 2.2배·전남 2.5배 증가 평균 상회
내국인 인력 공백 보완...국적 집중문제 해소를

광주·전남의 외국인 인구가 지역 경제와 산업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적 집중도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입국 정책 조정과 이주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광주는 청년 인구 유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전남은 노동력 고령화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5일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지역경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찬영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안지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현황과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통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이들은 최근 10년(2013~2023년) 간 외

국인 증가는 광주의 경우 1만6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2.2배, 전남은 2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2.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112만1000명에서 193만5000명으로 1.7배 증가한 전국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전남 시·군·구 중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2023년 기준 광주는 광산구(2만1000명)와 북구(6600명), 전남은 영암군(9600명)과 나주시(5100명)였다. 외국인 증가율은 광주에서는 광산구(2.8배), 전남에서는 완도군(6.8배), 진도군(6.1배), 신안군(3.7배) 순으로 높았다. 국적별로는 산업 구조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영암군 등 제조업 공단 지역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농림어업 중심의 전남 보성군은 베트남·태국·캄보디아 출신이 많았고, 어업 비중이 큰 진도군은 베트남·스리랑카·인도네시아 출신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외국인 국적 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유입 규모가 더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확인됐다. 경제적 기회보다 자국 출신 집단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외국인 유입이 촉진되고 있는 셈이다.

이찬영 교수는 “높은 국적 집중도는 이민을 촉진하지만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적 다양성을 고려한 입국 정책 조정과 공간적 분석 유인을 제공하는 분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일부 남성·청년층과 관련이 높고, 내국인과의 교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 증가가 자본 투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5일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지역경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와 달리 자본 투자 규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생산의 전문화와 분업 확대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관측됐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내국인 인구의 순수출 역시 뚜렷한 통계적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지역 청년 실태와 일자리 정책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문연희 광주연구원 지역경제교육센터장은 타 광역시에 비

해 높은 청년 인구 순수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소득과 성장 기회,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 생태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금 강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장기근속 지원, 광주형 공동복지체계 구축 등을 통한 일자리의 질적 전환, AI와 모빌리티, 헬스케어,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역 앵커 기

업과 공공기관을 연계한 지역 산업 기반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도 이뤄졌다. 토론에는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이철희 서울대 교수, 유정아 광주시 인구정책담당관,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미인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응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상의·승의과학기술고

협약형 특성화고 업무협약

광주상공회의소는 15일 광주상의 회의실에서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역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 산업 분야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화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학과 개편, 교육과정 설계·운영, 산학 연구 활동 및 프로젝트 개발,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전남도, 디자인 혁신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높였다

올해 25개 기업·81개 품목 디자인 개발 성과 공유
브랜드·패키지·IP 강화...소상공인 성장 기반 확대

전남도가 올해 소상공인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도는 한 해 동안 총 6억원을 투입해 18개 기업의 브랜드·포장패키지 53개 품목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리뉴얼했으며, 여기에 지식재산(IP) 창출종합패키지 사업을 더해 7개 기업 28개 품목에 대한 지식재산 등록 성과까지 확보했다. 브랜드 이미지(BI)와 제품 패키지, 상표권 등 전방위 디자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기틀을 실질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최근 동부청사에서 ‘2025년 소상공인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최종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역 25개 기업이 개발한 81개 품목의 디자인 성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 사업 참여기업,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연간 사업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내년 지원 확대 방안과 디자인 인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올해 사업은 단순 시각 디자인을 넘어 기업별 맞춤형 종합 솔루션 제공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BI·CI 개발, 제품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스토리 강

화, 상표 등록 등 제품의 정체성과 시장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병행되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확대 효과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했다.

김민철 전남지식재산센터장은 “기업 특성에 맞춘 디자인 컨설팅과 IP 보호 전략이 제품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향후 디자인·브랜드 역량 을 도내 소상공인 전반의 성장축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제품 디자인은 소비자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사업 성과가 시장에서 체감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청약 미달 속출...광주 청약경쟁률 ‘0.5대 1’

시장 관망속 실수요 중심 재편 ‘옥석 가리기’

광주·전남 지역 주택 청약시장이 경쟁률과 공급 물량 모두 축소되며 ‘실수요 중심’ 국면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광주 청약경쟁률은 지난 2024년 1.97대 1에서 올해 0.50대 1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기간 전남도 3.42대 1에서 2.19대 1로 경쟁 강도가 줄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도 6.45대 1에서 4.53대 1로 낮아졌는데 광주·전남의 하락세는 지방 평균을 밑돈다.

광주·전남의 청약 경쟁 약화는 곧바로 분양 물량으로도 이어진 모양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올해 분양예정 물량은 광주 2010가구, 전남 2210가구로 광역단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수준이다.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이 약

22만6719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두 지역 합산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광주·전남 모두 실수요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청약 경쟁률이 1대 1 이하로 떨어진 단지도 다수 발생하면서 주택 수요가 투자 목적에서 벗어나 입주·생활여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비수도권 분양 시장은 내년에도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유무, 분양가 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단지별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접근성이 양호해 인구 유입이 기대되거나 향후 광역 교통망이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핀셋 청약’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발전사업 주민의견 제출 안내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참여를 위한 ‘전남개발공사 ESS 1호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발전사업 명칭 : 전남개발공사 ESS 1호 발전소
- 위치 : 전남 목포시 대양동 1181 일원
- 발전사업 주요내용
 - 설비용량 : 12MW 내외
 - 준공 예정일 : 2027년 12월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 전남개발공사
- 열람/의견제출 관련
 - 열람/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까지
 - 제출방법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제출

- ※ 열람/의견제출처 : 전남개발공사 에너지사업처
- 우 편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8층 전남개발공사
 - 전화/팩스 : ☎ 061-280-0449, 061-280-0468 /FAX 061-280-0429
 - 전자메일 : kjichu@jndc.co.kr

http://in-point.kr
1%부족함 까지도 디자인 하라.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실내인터리어 디자인 · 설계 | 실내 건축 공사 | 3D 영상 · 모델링 / 조경도
육 · 내외 사인물 디자인 / 설계 | 경관 디자인 / 설계 | 산업디자인

(주)디에스시티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3 (산인동 2층)
디에스엔시티(주) | 광주광역시 서구 봉암신로 1-1
대표전화 | 062.433.8800

본지 2025년 12월 15일자에 게재된 광주지방발전 목포지원 경제4개
명의 법원장배부동산의 매각공고 중 3매각결정기일에서 <2025.11.1(월)
1600>를 <2025.11.1(월) 1600>로 정정공고함.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와 자초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동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희사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